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December 2025 Issue | Vol. 84

SPECIAL POINTS OF INTEREST

- ADB, 인프라 자금 동결로 필리핀 성장을 전망 5%로 하향 —page 1
- 경제 단체들, 전기요금 부가세 면제 촉구 — page 2
- 하원 위원회, 국가 최저임금 도입 승인 — page 2-3
- 2025년 11월 말 PEZA 투자 2.99% 증가 — page 3-4
- 필리핀 외국인 투자, 코로나19 봉쇄 수준으로 회귀 — page 4-5
- BOI, 신규 투자 264억 페소 승인 — page 5
- 예산 투명성 법안, 투자자 신뢰 제고 기대 - 미국상공회의소(AmCham) — page 5-6

ADB, 인프라 자금 동결로 필리핀 성장률 전망 5%로 하향

December 11, 2025 | Ruelle Castro | Malaya Business Insight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필리핀의 성장 전망을 지난 9월의 5.6%에서 5%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 성장 전망도 종전 5.7%에서 5.3%로 낮췄다고 덧붙였다.



수요일에 발표된 아시아개발전망(ADO)에서 이 다자개발은행은 홍수 방지 사업이 조사와 강화된 감사를 받으면서 공공 인프라 지출이 감소한 것이 이번 전망 하향의 이유라고 밝혔다.

ADB는 “홍수 방지 사업에 대한 조사와 더 엄격한 통제에 의해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서, 3분기 GDP 성장률은 4%로 둔화했고 연간 기준(1~3분기) 평균은 5%에 머물렀다” 고 말했다.

견조한 부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ADB는 일부 견조한 부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건설은 확대됐고, 10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서비스업(50.8)과 소매·도매업(51.3)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10월의 50.1에서 47.4로 하락해 다시 위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줬다. 다만 ADB는 “기업들이 더 높은 생산을 기대하고 있다” 며 향후 12개월에 대한 기업 심리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ADB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지속적인 통화 완화 기조가 국내 수요를 지지해 2026년 더 강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재원으로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조사와 기상 요인으로 인한 혼란은 하방 위험을 초래한다” 고 덧붙였다.

ADB는 필리핀의 올해 평균 인플레이션이 1.8%를 기록한 뒤 2026년에는 3%로 상승하겠지만, 이는 여전히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2~4% 목표 범위 내라고 예상했다.

ADB I A1

동남아 전망 상황

필리핀의 성장 전망 하향 조정과 달리, ADB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장 전망은 4.3%에서 4.5%로 상향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의 3분기 강한 경제 실적이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ADB는 “글로벌 및 국내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수출 회복과 특정 산업 성장의 수혜를 보는 국가도 있는 반면, 높은 가계부채, 투자 둔화, 인프라 병목 현상 등 제약 요인을 겪는 국가도 있다” 고 분석했다.

지역의 위협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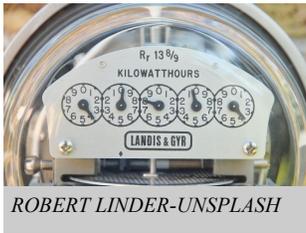
ADB는 글로벌 불확실성, 기후 관련 혼란, 국내 정치 상황이 동남아 지역의 위협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B는 동남아시아가 여전히 견조한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유연한 경제 전략이 전망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adb-lowers-ph-growth-forecast-to-5as-infra-funding-freeze-slows-gdp/>

경제 단체들, 전기요금 부가세 면제 촉구

December 10, 2025 | Justine Irish D. Table | BusinessWorld



ROBERT LINDER-UNSPASH

전기를 부가가치세(VAT)에서 면제하면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필리핀의 경쟁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러 경제 단체들이 밝혔다.

필리핀상공회의소(PCCI)는 수요일 성명에서 “전기는 가정, 중소기업,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투입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를 VAT에서 면제하면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필리핀상공회의소(PCCI)와 필리핀수출업자연맹(Philippine Exporters Confederation, Inc.)은 하원 법안(House Bill) 6740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필리핀 노동조합회의(Trade Union Congress of the Philippines) 소속 레이몬드 데모크리토 C. 멘도사(Raymond Democrito C. Mendoza) 의원이 작성했으며, 전기 판매를 VAT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근로자와 가정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기 요금 인하로 중소기업과 주요 산업이 성장하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며,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은 정부의 비용을 단순히 상쇄하는 수준을 넘어 훨씬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PCCI 회장 **에누니나 V. 망지오(Enunina V. Mangio)**는 높은 전기 요금이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전기의 VAT를 제거하면 운영 비용이 감소하고, 공장 생산 확대, 신규 투자 유치, GDP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를 유치하고 산업 기반을 성장시키려면 전기 요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기의 VAT 면제는 필리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PCCI 의장 **조지 T. 바르셀론(George T. Barcelon)**은 전기 요금 인하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 요금이 저렴해지면 산업은 운영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소규모 및 중소기업(MSME)**은 증가하는 비용을 더 잘 관리하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데이터 센터, 첨단 제조업, 디지털 인프라 등 에너지 집약적 프로젝트 유치에도 전기 요금 인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제안된 VAT 면제는 세수 손실로 볼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 강화, 기업 신뢰도 향상, 장기적으로 세원 확대를 통한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 비용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더 역동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12/10/717889/biz-chambers-call-for-power-to-be-vat-exempt/>

하원 위원회, 국가 최저임금 도입 승인

December 10, 2025 | Jovee Marie N. de la Cruz | BusinessMirror

하원 노동고용위원회(House Committee on Labor and Employment)는 국가 최저임금제(National Minimum Wage System) 도입을 위한 통합 법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간 임금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 오랜 개혁의 진전을 의미한다.

위원장인 아기마트(Agimat) 소속 **하원 의원 라몬 B. 레빌라 3세(Ramon B. Revilla III)**는 이번 승인에 대해 “분절된 임금 결정 구조를 해체하려는 수십 년간 노력의 중요한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레빌라는 “위원회의 승인으로 우리는 필리핀 근로자들 사이의 수십 년간 불공정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이 국가 최저임금 법안은 근로자가 어디에 거주하거나 고용되었는지와 상관없이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Cont, page 3]

하원 위원회, 국가 최저임금 도입 승인

December 09, 2025 | Joann Villanueva | Philippine News Agency

이번 대체 법안(substitute bill)은 하원 법안 55호, 94호, 3266호, 4102호, 5924호를 통합한 것으로, 현행 지역별 임금제를 단일 국가 최저임금(NMW) 체계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기 국가 최저임금은 시행 시점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지역별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NCR(국가수도권) 최저임금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아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된다.

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안은 3년간의 점진적 이행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지역별 임금은 국가 임금 수준과 점차 일치하도록 조정된다. 지역별 임금 격차는 **첫해에 30%, 둘째 해 35%, 셋째 해 나머지 35%**를 줄인 뒤, 이후에는 완전한 통일이 의무화된다.

법안의 핵심 개혁 중 하나는 지역 삼자 임금생산성위원회(RTWPBs) 폐지이다. 국가 최저임금이 완전히 시행되면, 임금 결정 권한은 재편 강화된 국가 임금생산성위원회(NWPC)**로 중앙 집중화된다. NWPC는 연간 국가 최저임금 책정, 경제 혼란 시 임시 임금 조정, 전국 삼자 임금 회의 개최 등을 담당한다.

RTWPB 인력은 흡수, 재배치 또는 공무원 규정에 따른 퇴직·분리 수당을 받을 예정이다.

법안은 근로자 보호와 기업 생존력의 균형을 고려한다. 유효한 BMBE(소규모 기업) 인증을 받은 초소기업(micro-enterprises)은 국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법 시행 3개월 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은 반영될 수 있다.

노동부(DOLE)에 따른 집행 조치도 강화된다. 근로자 또는 노조 대표 참여 의무화가 포함되며, 위반 시 미지급 임금의 2배 벌금과 1~2년 징역에 처해진다.

레빌라 의원은 이번 법안이 필리핀 근로자의 공정성과 존엄성을 위한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통일된 임금이 가계 생활 수준 향상, 노동 이동성 증대, 장기적 국가 성장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12/10/house-panel-okays-imposition-of-national-minimum-wage/>

2025년 11월 말 PEZA 투자 2.99% 증가

December 09, 2025 | Joan Villanueva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필리핀 경제특구청(PEZA) 관할 지역에 대한 투자가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2.99% 증가한 2,075억 8천만 페소를 기록하며, 연간 목표인 2,000억 페소를 초과했다고 PEZA가 밝혔다.

화요일 PEZ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총 투자는 2,015억 5천만 페소였다.

이번 성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 239건이었던 신규 및 확장 프로젝트가 17.57% 증가했고, 예상 수출액은 7억 3,900만 달러로 89.19% 증가한 결과라고 PEZA는 설명했다.

이들 투자를 통해 69,737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됐다.

올해 11월 한 달 동안만 PEZA 이사회는 38건의 신규 및 확장 프로젝트, 총 322억 1천만 페소 규모를 승인했으며, 예상 수출액은 17억 4,100만 달러, 필리핀인 직접 고용은 9,80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Cont. page 4]



2025년 11월 말 PEZA 투자 2.99% 증가

[Cont. from page 3]

이들 투자에는 수출 제조, 시설 개발, 정보기술·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 부문, 경제특구 물류 서비스 기업(ELSE), 내수 시장 지향 활동, 에코존 개발과 관련된 38개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프로젝트는 칼라바르손(Calabarzon), 국가수도권(NCR), 중부 루손(Central Luzon), 일로코스(Ilocos), 비콜(Bicol), 중부 비사야(Central Visayas), 북민다나오(Northern Mindanao), 다바오(Davao)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PEZA는 “이번 **투자 분산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의도적인 추진을 반영하며, 더 많은 지방이 일자리 창출, 산업 확장, 경제 활동 증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고 밝혔다.

또한 PEZA 사무총장 **테레소 판가(Tereso Panga)**는 “외부 충격과 어려운 글로벌 투자 환경 속에서도 에코존 산업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은 필리핀의 경쟁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PEZA의 서비스 브랜드를 반영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투자 생태계를 강화하고, 필리핀을 지속 가능하고 기술 기반이며 회복력 있는 산업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With a report from Joann Villanueva/PNA*)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64881](https://www.pna.gov.ph/articles/1264881)

필리핀 외국인 투자, 코로나19 봉쇄 수준으로 회귀

December 10, 2025 | Derco Rosal | Manila Bulletin



Foreign investment levels haven't been this low since the strictest pandemic lockdown.

홍수 방지 부패 스캔들 등 국내 요인으로 인해, 필리핀의 오프라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이 9월에 3억 2천만 달러로 떨어졌다. 이는 가장 엄격한 코로나19 봉쇄가 시행된 2020년 4월의 3억 1,380만 달러 이후 최저 수준이다.

12월 10일 수요일 발표된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최신 잠정 자료에 따르면, 9월 FDI 유입액은 전년 동월 4억 3,200만 달러보다 4분의 1 이상 감소했다.

일본이 이 달의 FDI 주요 출처국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부문이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다.

또한 1월 이후 주식 자본 투자의 주요 출처국은 일본이었고, 뒤이어 미국(US)과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다.

BSP는 “이들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 이라고 밝혔다.

9월 말 기준, 순 FDI 유입액은 전년 동기 71억 2천만 달러에서 22.2% 감소한 55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연초부터 현재까지 연간 누적 유입액도 전년 대비 낮았다.

올해 필리핀의 FDI 목표액 100억 달러와 비교하면, 9개월 누적액은 55.4%에 해당한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 94억 4천만 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FDI는 비거주 투자자가 현지 기업 지분의 최소 10%를 소유하고, 주식 자본, 채투자 수익, 사내 차입 형태로 투자하는 국경 간 투자를 의미한다.

BSP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FDI 순유입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6%**에 해당한다.

민간 경제학자들은 FDI 감소가 국제적 요인과 국내 요인 모두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필리핀개발연구소(PIDS) 선임 연구원 존 파올로 리베라(John Paolo Rivera)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일부 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부패 스캔들로 정부 지출이 지연되고, 예상보다 낮은 GDP 성장률, 투자자 신뢰 하락 등 국내 요인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고 주장했다.

리베라는 “이로 인해 특히 제조업, 인프라, 서비스업 등 장기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망설임이 생겼다” 고 말하며, 폐소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프로젝트 승인 지연이 투자 심리에 또 다른 신중함을 더했다고 덧붙였다.

[Cont. page 5]

필리핀 외국인 투자, 코로나19 봉쇄 수준으로 회귀

[Cont. from page 4]

SM 인베스트먼트(SM Investments Corp., SMIC) 그룹 경제학자 로버트 단 로세스(Robert Dan Roces)는, 5년 이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FDI는 국내 경제 성장 둔화와 여전히 높은 글로벌 금리로 인한 투자자들의 신중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기업 심리 위축과 정부 지출 긴축으로 인해 4%로 급락했으며, 2025년 1~3분기 GDP 성장률은 평균 5%로, 정부 목표치인 5.5~6.5%에 미치지 못했다.

레이스 타칸동 & 컴퍼니(Reyes Tacandong & Co.) 선임 고문 조나단 라벨라스(Jonathan Ravelas)는, 이번 FDI 감소가 글로벌 불확실성, 높은 차입 비용, 정책 공백을 반영한다고 분석하며, 중앙은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올해 마지막 분기 강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라벨라스는 “신뢰가 회복되면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서 완전한 FDI 유입이 기대된다”고 전망하며, 기업들이 자본 유치를 위해 지금이 명확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로세스는 “투자 유입은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차입 비용이 낮아지고 개혁이 실현될 때까지 모멘텀은 완만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라는 이번 감소가 “투자자들이 명확한 거버넌스 신호, 안정적 정책 집행, 강한 경제 모멘텀을 확인한 후에야 새로운 자본을 투입하려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https://mb.com.ph/2025/12/10/foreign-direct-investments-sink-to-over-5-year-low-in-september-amid-flood-control-corruption-scandal>

BOI, 신규 투자 264억 페소 승인

December 12, 2025 | Logan Kal-El M. Zapanta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필리핀 — 투자위원회(BOI)는 신규 투자 264억 3천만 페소를 추가 승인했으며, 13개 프로젝트가 최종 승인을 받아 연말까지 기관의 연간 누적 실적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BOI는 금요일 발표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2,632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승인된 프로젝트 중 상당 부분은 IT-BPM 서비스 수출 사업에 집중됐으며, 루손(Luzon) 지역에 시설이 계획되어 약 2,3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규모 주택 프로젝트에는 약 18억 페소가 투입되며, 약 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도 투자에 포함되었으며, 230억 페소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32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용량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64036/boi-oks-p26-4b-in-new-investments>



예산 투명성 법안, 투자자 신뢰 제고 기대 – 미국상공회의소(AmCham)

December 11,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AMCHAM PHILIPPINES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the Philippines, Inc.

필리핀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제안된 ‘국가 책임을 위한 시민 접근 및 지출 공개(CADENA) 법안’이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mCham의 아랑카다(Arangkada) 프로젝트 책임자 **스티브 윙케이트(Steve Winkates)**는 목요일 성명에서, “예산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이 법안은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열며,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의원 파울로 베니노 아퀴노 IV(Paolo Benigno Aquino IV)가 발의한 상원 법안(Senate Bill) 1506호는 디지털 예산 포털을 구축하여 시민이 예산 계획 및 준비, 입법 및 승인, 조달, 예산 집행, 자금 관리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ont. page 6]

예산 투명성 법안, 투자자 신뢰 제고 기대 – 미국상공회의소(AmCham)

[Cont. from page 5]

상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12월 10일 2차 심의를 통과했다.

화요일,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CADENA 법안과 함께 반왕조법(Anti-Dynasty Law), 독립인민위원회법(Independent People's Commission Act), 정당명부제도 개혁법(Party-List System Reform Act)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AmCham의 아랑카다 프로젝트 책임자 스티브 윙케이츠(Steve Winkates)는 “CADENA 법안의 우선 처리 신호는 투명성이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며, 정부와 함께 이 법안 및 기타 중요한 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AmCham은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기업활동 용이성 개선,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개정, 공공기관 감독 강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꾸준히 지지해왔다.

AmCham은 “이러한 개혁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상공회의소 필리핀(BCCP) 의장 크리스 벨슨(Chris Nelson)은 수요일, 공공사업 스캔들 조사가 핵심 개혁 법안 통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마르코스 행정부가 우리가 지지해온 입법 메시지를 인식한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홍수 방지 사업과 관련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조사에 투입되면서, 입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 고 덧붙였다.

BCCP는 제20대 의회를 위해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디지털 결제법(Digital Payments Act), 블루 이코노미법(Blue Economy Act)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입법자, 민간 계약자가 연루된 수십억 규모의 공공사업 스캔들을 조사 중이다.

[Source: *bworldonline.com/economy/2025/12/11/718266/budget-transparency-bill-to-enhance-investor-confidence-amcham-says/*](https://bworldonline.com/economy/2025/12/11/718266/budget-transparency-bill-to-enhance-investor-confidence-amcham-says/)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BDO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bdo.com.ph

We find ways®

BDO Unibank is regulated by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https://www.bsp.gov.ph>
For concerns, please visit any BDO branch near you or reach us thru any of the channels listed on our website: <https://www.bdo.com.ph/consumer-assistance>.
Deposits are insured by PDIC up to P500,000 per depositor. The BDO, BDO Unibank & other BDO-related trademarks are owned by BDO Unibank, Inc. All Rights Reserved.